

타이거즈 '통합 우승' 함께 축하합니다

선수단·직원 등 참여 축승연
호남 초·중·고 27개 야구부에
7억1000만원 격려금 전달도
30일 'V12 타이거즈 페스타'
사인회·우승트로피 포토존 등
금남로에션 카페레이드 예정

'2024 챔피언' KIA 타이거즈가 통합 우승을 기념하는 잔치를 벌였다. KIA는 지난 27일 광주 남구 송하동 광주실감콘텐츠클럽에서 2024 KBO 리그 우승과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기념하는 축승연을 진행했다.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통합 우승을 이룬 선수들과 코칭스태프는 물론 뒤에서 묵묵히 선수단을 지원한 버스 기사와 구단 직원 등도 함께 했다.

축승연을 직접 준비한 정의선 회장이 기록적인 수도권 폭설로 행사에 참가하지 못하면서, 송호성 구단주가 대신 격려사를 하는 것으로 행사의 막이 올랐다.

이어 우승 세리머니와 함께 선물 교환식이 진행됐다.

선물 교환식을 통해 이범호 감독과 주장 나성범은 송호성 구단주로부터 우승반지와 축하 선물을 받았다. 선수단은 답례로 사인 유니폼과 사인볼을 선물했다.

심재학 단장의 건배사와 함께 만찬 행사가 진행됐고, 초대 기사의 축하 공연도 펼쳐졌다.

'우승 주장' 나성범은 "모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선수들이 힘을 내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달성할 수 있었다. 모기업과 구단에 항상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잔칫날' 아마추어 야구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KIA는 이날 행사에서 호남 지역 27개 초중고 야구부에 총 7억 1000만원의 특별 격려금을 수여했다. 최준영 대표이사도 호남 지역 야구부를 대표해 올 시즌 전국대회 '3관왕'을 이룬 전주교의 라구한 교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또 KIA는 행사에 앞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연고지인 광주를 포함한 호남지역 13개 초등학교가 참가하는 유소년 야구 클리닉 '야구 꿈나무 코칭 클래스'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주장 나성범을 비롯해 이우성, 윤영철 등 11명의 선수가 참가해 유소년 선수들을 직접 지도했다.

구단이 마련한 축승연을 통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선수단은 30일에는 팬들을 초청해 우승 인사를 하게 된다.



2024시즌 통합 우승을 이룬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지난 27일 광주 남구 송하동 광주실감콘텐츠클럽에서 열린 축승연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주장 나성범(왼쪽)과 이범호 감독(오른쪽)이 송호성 구단주에게 사인 유니폼과 사인볼을 선물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선수단 전원과 팬 5000명이 참석하는 'V12 타이거즈 페스타'를 개최한다.

사전 행사로 팬 사인회, 우승트로피 포토존이 운영되며 우승 트로피와 함께 선수단이 입장해 본 행사를 열게 된다.

이어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한국시리즈 응원전, 호랑이 가족 한마당, 초대기사의 축하 공연 등이 펼쳐진다. 선수들은 팬들에게 직접 감사의 인사를 전

하고, 공들이 준비한 장기자랑 무대도 선보인다.

KIA는 입장 팬들을 위해 통합 우승 특별 포토카드와 한국시리즈 응원머플러를 선물로 준비했다. 한국시리즈 MVP 김선빈은 선착순 1000명에게 텀블러 1000개를 증정한다.

페스타에 앞서 한국시리즈 출전 선수들은 광주시가 주최하는 카페레이드(금남로 5가-5·18 민주광장)에도 참가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폭설에 '진땀'

행사 준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광주행 결국 무산
오키나와 캠프 선수들 인천 대신 대만 거쳐 오늘 귀국

수도권의 기록적인 폭설이 KIA 타이거즈의 '우승 잔치'에 영향을 미쳤다.

KIA는 지난 27일 광주 남구 송하동 광주실감콘텐츠클럽에서 우승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24 KBO 리그 우승과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기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직접 준비한 행사였다.

지난 2017년 통합 우승 당시에는 서울에서 축승연이 열렸지만 이번에는 KIA '안방'인 광주가 무대가 됐다.

정의선 회장이 광주를 찾아 선수단에 축하 인사를 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지만, 예상치 못한 날씨 변수가 발생했다.

수도권에 쏟아진 눈폭탄에 정의선 회장의 발이 묶인 것이다.

앞서 한국시리즈 5차전 당시에도 정의선 회장은 헬기까지 대기시키면서 광주행을 준비했지만 일정상 우승 행가래를 받지 못했다.

37만 만의 광주 우승 현장에 함께 하지 못했던 정의선 회장은 축승연으로 대신 기쁨을 나누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하늘이 아쉽게 했다.

눈길을 뚫고 광주를 찾으려고 했던 정의선 회장은 결국 멀리서 아쉬운 마음을 전해야 했다.

폭설로 마무리캠프단도 진땀을 흘렸다. KIA는 지난 4일부터 일본 오키나와에서 마무리캠프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26일 축승연 참석을 위해 한국시리즈에서 활약한 선수들과 코치 일부가 먼저 귀국을 했고, 28일에는 남은 선수단이 인천 공항을 통해 귀국을 하면서 이번 마무리캠프가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도권에 강타한 폭설로 공항이 마비가 되면서 인천행 비행기가 뜨지 못했다.

30일 팬들과 함께하는 'V12 타이거즈 페스타'도 준비된 만큼 자칫하면 '전원 참가'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일정적으로 장기자랑 무대를 준비했던 선수들에게는 더 애가 타는 순간이었다.

KIA는 정상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경유를 통한 '귀국 대작전'을 펼쳤다.

이날 오후 1시 5분 출발이 예정됐던 비행기 탑승이 불발된 KIA 캠프단은 오후 8시 비행기로 대만 타이베이로 거쳐, 29일 오전 5시 대구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광주에서 수도권 하늘을 올려본, KIA의 긴박한 이틀이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7연패 끊은 페퍼스 거침없다...시즌 첫 2연승



페퍼저축은행 A페퍼스가 지난 27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2라운드 경기에서 정관장 레드스파이크스에 세트스코어 3-1승을 거뒀다. 득점에 기뻐하고 있는 페퍼스 선수단. (KOVO 제공)

정관장 3-1 꺾고 5위로 도약
이한비 두 경기 연속 최다득점

페퍼저축은행 A페퍼스가 시즌 첫 연승에 성공하며 5위로 도약했다.

페퍼스는 지난 27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2라운드 경기에서 정관장 레드스파이크스에 세트스코어 3-1(25-16 17-25 25-23 25-20)로 승리했다.

지난 22일 안방에서 한국도로공사를 세트스코어 3-2로 꺾고 7연패를 끊어냈던 페퍼스는 이날 승리로 승점 3을 더하며 5위(3승 7패·승점 9점)로 한계단 올라섰고, 시즌 첫 연승을 달성했다.

페퍼스의 리 팀시브효율은 20%로 35.29%인 정관장에 비해 한참 뒤쳐졌지만, 공격성공률에서 37.58%를 기록하며 상대(35.44%)에 소폭 앞섰다.

이날 이한비가 20득점(공격 성공률 55.88%)으로 팀 최다 득점을 올렸고 테일러 19득점(31.25%), 박정아 13득점(27.66%)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따내며 활약했다.

1세트에서는 페퍼스의 우세로 경기가 흘렀다. 경기 초반 2점을 내주고 시작했지만 5-5 동점을 만들어 낸 페퍼스는 거침없이 점수 차를 벌였다. 정관장이 범실 8개를 쏟아내는 사이 24-16이 됐고, 박은서가 킥오픈에 성공하면서 1세트의 주인공은 페퍼스가 됐다.

박정아가 선취점을 따내고 시작한 2세트 초반,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다.

10-8로 페퍼스가 앞섰지만 이후 정관장의 연속 득점이 이어지면서 10-14로 역전당했다. 2세트에 서만 5개의 범실이 이어지며 1세트와는 상반된 모습으로 승기를 빼앗겼다.

3세트에서는 치열한 접전이 전개됐다.

4점 차로 뒤쳐지던 페퍼스는 박정아의 오픈 공격으로 19-18로 앞섰고 '압도적 높이' 테일러와 '적절한 타이밍' 하혜진의 블로킹 득점 그리고 장위의 속공까지 더해지면서 세트스코어 역전에 성공했다.

흐름을 가져온 페퍼스는 4세에서 8득점을 올린 이한비의 활약으로 승리를 확정했다. 이날 팀 공격을 주도한 이한비는 24-20에서 오픈으로 세트를 마무리 지었다.

페퍼스는 살아난 수비 조직력과 결정력으로 공수 양면 뛰어난 활약을 선보이면서 첫 연승을 만들었다.

한편, 페퍼스는 오는 12월 1일 오후 4시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를 맞이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페퍼스 박정아 '베스트7' 도전



페퍼저축은행 A페퍼스 박정아(사진)가 V리그 베스트7에 도전한다.

한국 배구 연맹(KOVO)은 내달 9일 오후 3시까지 KOVO 출범 20주년 기념 '베스트7'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지난 20년간 V리그에서 활약한 부문별 최고의 선수들을 가리는 이번 투표를 통해 남녀부 7인(아웃사이드 히터·미들블로커 각 2명, 세터·아포짓 스파이크러·리베로 각 1명) 총 14명이 선정된다.

KOVO는 각 포지션 기록별 역대 Top10 선수를 1차 후보(정규리그 '베스트' 선정기준+총 경기수)로 결정한 뒤, 운영본부의 추천으로 포지션 별 선정인원 5배수를 최종 후보자로 등록했다.

페퍼스 박정아는 김연경(흥국생명), 강소휘(한국도로공사), 황민경·이소영(이상 IBK기업은행), 표승주(정관장), 고예림(현대건설), 한송이(전전관장), 백목화(대구시청 배구단), 한유미(KBSN SPORTS 해설위원)와 함께 아웃사이드 히터 부문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박정아는 역대 득점 1위(5737점)·경기수 4위(387회)·서비스공 5위(239)를 기록하고 있다.

최종 14인은 오는 2025년 1월 4일 강원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치러지는 2024-2025 V리그 올스타전에 초청돼 트로피를 받는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